

임산부들의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강 희 선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Perceptions Regarding Influenza Vaccination during Pregnancy among Childbearing Women

Kang, Hee S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omens' perceptions regarding influenza vaccination during pregnancy among Korean childbearing women. **Methods:** Data was colle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from June to September, 2010. Forty Korean women participated in 13 focus groups. After obtaining permission from participants, each session of the focus group was audio-taped and transcribed verbatim. The responses were analyzed utiliz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Forty women ranging from 26 to 43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major themes were safety concerns; effects of fetal protection and infection prevention; lack of perceived needs; and encouragement as well as concerns from others. Participants raised questions on whether the vaccine was safe and effective, and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harmful effect of influenza vaccine to their bodies and the fetus. The major reason for influenza vaccination during pregnancy was to protect self and fetus. Also, clinician's recommendation was the facilitating factors for influenza vaccination during pregnancy.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concern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educating childbearing women about the influenza vaccine during pregnancy.

Key Words: Influenza vaccines, Women, Pregnancy, Percep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2009년 4월에 새로운 변이를 일으킨 신종인플루엔자 A(H1N1)가 멕시코에서 규명되었고 (Michaelis, Doerr, & Cinatl, 2009), 임부가 감염되면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rcher et al., 2009; Creanga et al., 2010; Jamieson et al., 2009; Naleway, Smith, & Mullooly, 2006). 임부들에게 인플루엔자 면역접

종은 매우 비용-효과적이며(Beigi, Wiringa, Bailey, Assi, & Lee, 2009), 불활성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생후 6개월까지 영아와 임부에서 인플루엔자 감염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Zaman et al., 2008).

2009~2010년 인플루엔자 시즌동안 임신부들은 인플루엔자 A 백신과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두 가지를 맞도록 권장되었다(CDC, 2010). 그리고 2010~2011년 절기에는 2009년에 발생했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A형 H1N1)가 대유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통상적인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이며, 이외에도 1~2가지 인플

주요어: 인플루엔자 백신, 여성, 임신, 인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ang, Hee Su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u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699, Fax: 82-2-824-7961, E-mail: goodcare@cau.ac.kr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o. 2010-0004761).

- This work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10-0004761).

투고일: 2011년 7월 8일 / 1차심사완료일: 2011년 7월 21일, 2차심사완료일: 2011년 8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29일

루엔자 바이러스(A형 H3N2, B형)가 더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어 신종플루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A까지 예방할 수 있는 3가 백신(A형 H1N1형, A형 H3N2형, B형 바이러스 예방)이 만들어졌고, 임부들은 고위험군이므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권장되었다(KCDC, 2009).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임부들의 인플루엔자 A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률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임신부와 출산 직후 캐나다 여성 중 76%(Fabry, Gagneur, & Pasquier, 2011)가 인플루엔자 A 백신을 접종한 것에 비해 산전외래를 방문한 호주 임부의 36.9%(White et al., 2010)가 인플루엔자 A 백신을 접종했다. 2009~2010년 인플루엔자 시즌동안 워싱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유타 등 10개 주의 임신부들 중 50.7%가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것에 비해 46.6%가 인플루엔자 A 백신을 맞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DC, 2010).

임부들이 인플루엔자 A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지아 주에서 2006년에 임부들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가장 주요 이유는 ‘평상시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아서’ 또는 ‘임신동안 의료진이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CDC, 2009a). 이외에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와 백신의 위험성과 혜택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부족이 임부들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의 장애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Naleway et al., 2006).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부터 임신부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기간동안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는 227명 중 9명(4%)에 불과하였다(Kim et al., 2009). 뿐만 아니라 2009년 인플루엔자 A (H1N1) 감염이 유행한 시기에 한국질병관리본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임신부 및 분만 후 2주 이내 산모 등이 인플루엔자 A 감염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백신접종을 하도록 권장하였다(KCDC, 2010). 그러나 2009~2010년 절기에 인플루엔자 A 백신을 접종한 임부는 43만명 중 86,000명으로 23.3%에 불과하였다(Kwon, Cho, Lee, Bae, & Lee, 2011). 그러나 임부와 관련된 연구로는 유행성 인플루엔자 A (H1N1 2009) 감염 위험성(Choi, 2011)과 임신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낮다는 연구(Kim et al., 2009)에 불과하다. 이처럼 임부들이 인플루엔자 A 백신이나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률이 낮음에도 백신을 왜 맞지 않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어 임신동안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방 가능한 인플루엔자 감염 발생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임신부들이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해 여성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부들의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신부들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가임여성 중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09년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유행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들이다. 참여자 모집은 산모들이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인 맘스홀릭에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낸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산모와 경기도에 위치한 일개 보건소,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나 병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이용하여 주위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3~4명 단위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총 13개 그룹)를 통해 이루어졌고, 인터뷰는 연구진행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나 대상자의 집에서 진행되었고, 1시간에서 2시간동안 소요되었으며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이었고 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포커스그룹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서면 동의를 받았고, 진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을 중도에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참여자들의 말을 그대로 필사한 후 문서파일로 저장하여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진행을 위해 질문은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

요 질문, 마무리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인플루엔자 A가 공식적인 명칭이나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할 때는 신종플루로 명명하였다. 1) 도입질문으로는 2009년 신종플루와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았는지, 2) 전환질문으로는 신종플루,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접종하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3) 주요 질문 내용들로는 임신 중 신종플루나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백신접종을 한 이유 또는 하지 않은 이유, 4) 마무리 질문은 '이야기 하실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나요?'이었다.

포커스그룹 참여자들에게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준비단계로 간단한 대화를 나눔으로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포커스 그룹 진행은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질문 순으로 이어가면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진행과정 동안 진행자는 참여자들 모두가 골고루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참여자가 말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또는 “~을 의미하십니까?” 등의 피드백을 통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3. 자료분석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Krueger & Casey, 2000). 1단계 연구시작 시기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인플루엔자 A 및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 대한 기존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연구목적에 합당한 질문을 개발하였다. 2단계로 포커스 그룹 진행 동안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녹음기를 활용하였다. 참여자가 말한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모호한 내용은 추가 질문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청하였고, 확인을 통해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3단계로 포커스 그룹 종료 직후에는 앞서 시행한 포커스 그룹과 다른 점 및 공통점, 다음 포커스 그룹 토의에서 확인할 점 등을 요약 정리하였다.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후 연구자가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에 정확하게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4단계로 전체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끝난 후 모아진 자료는 용어, 맥락, 내적인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서 분석하였다. 분석동안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인터뷰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룹 내와 그룹 간에 유사한 주제들을 비교, 대조과정을 거치면서 한 줄 한 줄 읽으

면서 의미 있는 내용에는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범주로 묶는 작업을 하였다. 분석된 내용은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엄정성(Lincoln & Guba, 1985)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신뢰성(Credibility)을 위해 인터뷰동안 녹음기를 사용하였고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교수에게 분석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의 전이성(transf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산과 경산,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여성과 접종하지 않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포화될 때 까지 인터뷰한 내용을 충분히 서술하였고, 확증성(confirmability)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문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는 총 40명이었고 연령은 26세에서 43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0.77 ± 3.48 세이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대학교 이상 졸업자들이었다(응답자 35명 중 33명, 94.3%). 참여자 중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은 12명(30%)이었고, 이 중 첫 번째 임신인 여성은 6명이었으며, 2번째 임신인 여성은 4명, 3번째와 네 번째 임신인 여성은 각 1명이었다. 나머지 28명(70%)은 인플루엔자 A 유행당시 임신 중이었다. 참여자 중 2009년도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여성은 19명(47.5%), 접종을 하지 않은 여성은 21명(52.5%)이었고,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여성은 5명(12.5%)이었다. 참여자들의 출산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6명(15%)은 출산경험이 없고(현재 임신 중), 28명(70%)이 1회, 4명(10%)이 2회, 2명(5%)이 3회 출산 경험이 있었다(Table 1).

2.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및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연구참여자들의 임신 중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및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대한 인식은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4개의 범주는 안전 및 효과에 대한 신뢰부족, 필요성 부족, 태아보호 및 감염예방 효과, 백신접종에 대한 주위의 격려와 염려이다. 분석결과를 범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30.77±3.48
	20~<30	15 (37.5)
	30-<40	24 (60.0)
	≥40	1 (2.5)
Education (n=35)	High school	2 (5.7)
	≥College	33 (94.3)
Pregnant	Yes	12 (30.0)
	No	28 (70.0)
Influenza A vaccination in 2009	Yes	19 (47.5)
	No	21 (52.5)
Seasonal influenza vaccination in 2009	Yes	5 (12.5)
	No	35 (87.5)
Number of delivery	0	6 (15.0)
	1	28 (70.0)
	2	4 (10.0)
	3	2 (5.0)

1) 안전 및 효과에 대한 신뢰부족

참여자들이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또는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유는 ‘안전성에 대한 염려’와 ‘효과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1) 안전성에 대한 염려

참여자 중에는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이 검증이 덜 된 면이 있고,’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임신이라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가 신종플루나 독감에 걸려서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나중에 나타날’ 부작용이 ‘무서워서’ 그리고 ‘모유수유 중이라서 왠지 불안하여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참여자는 ‘신종’자가 붙어서 신종플루는 더 세다고 생각하였고, 주사나 약이나 아기에게 이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맞지 않았다고 했다. 계절독감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참여자들 중에는 평소에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았으나(맞은 적이 있으나) 임신해서는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안 맞았다’고 했다.

“신종플루 백신도 독감만큼 안정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았고 혼자라면 성인이고 하나까 상관이 없지만 애가 태어나면 앞으로 몇십년 살지 모르텐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의사가 얘기해서 신뢰는 가는데 약에 대해서는 믿음이 100%는

없어요.”, “아무래도 기형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선천성질환이라던가 그런게 걱정이 되었어요,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것도 문제고.. 감기걸려도 감기약 안먹고 소화 안 되어도 참고 그랬는데 괜히 그런 것 먹었다가..”

“신종플루는 아무래도 제가 살면서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더군다나 임신도 했고 뱃속의 아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많았죠. 죽는 것 등 극단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약 자체가 신약이고, 임상 자체도 너무 짧고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임신부라서 더 안 맞고 싶더라구요.”, “너무 급하게 대량생산해가지고. 거기다 사망 환자 보기도 딱 뜨니까. 불안한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독감이면 그냥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냥 앓고 지나가는게 백신 맞고 잘못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2) 효과에 대한 의구심

일부 참여자들은 과연 이걸 맞는다고 해서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안걸릴까 궁금해했고, 백신이 나온 지 얼마 안됐고 특히 임신부들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안된거라 불안했다고 하였으며 ‘맞아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맞았다고 했다.

“다른 백신에 대해서는 아. 나한테 맞으면 좋은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신종플루 백신)이 좋은걸 몰랐어요.”

2) 필요성 부족

참여자들이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또는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유는 ‘예정보다 이른 출산,’ ‘건강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함,’ ‘의료진의 부정적 반응’ 때문이었다.

(1) 예정보다 이른 출산

임산부는 2009년 12월부터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했었는데 일부 임산부는 10월에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었거나, 예약을 했는데 예정보다 빨리 아기를 낳는 바람에 백신접종을 못했다고 했다.

(2) 건강함

참여자 중에는 ‘면역성이 좋은 것 같고 건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독감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으며 독감주사를 맞

은 경험이 없는데 굳이 내가 임신해서까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주사를 맞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으며, ‘건강하기 때문에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3) 심각성을 느끼지 못함

일부 참여자는 접촉기회가 적으니까 자신이랑 별개라고 생각했고, 안 걸릴거라고 생각되어서 임신 중에는 맞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으며, 점점 완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맞는 추세여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전염병도 안 걸렸었으니까 설마 그런 전염병이 자신에게 걸리겠냐고 감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경우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만큼 심각성을 못 느껴서 안 맞았다고 했다.

(4) 의료진의 부정적 반응

일부 참여자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산부인과에서는 굳이 ‘맞아라’ 이런 말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접종 전에 상담을 했을 때 ‘임신이 되면 안 맞는 게 좋다’ 또는 ‘맞으라고도 말 못하겠고 맞지 말라고도 말 못하겠으니’ 최종결정은 임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 의료진도 있었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친구들에게 해준 의료진들의 권장내용을 비교하면서 말이 서로 틀리니까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고 했다.

3) 태아보호 및 감염예방 효과

참여자들이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또는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이유는 ‘질병감염에 대한 공포’와 ‘감염위험이 높음,’ ‘자신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평소부터 맞아왔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1) 질병감염에 대한 공포

참여자들은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이유는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치명적이라 해서,’ 부작용보다는 질병에 대한 공포가 심했고, 전염이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뉴스에서도 자꾸 나오고, 가을 지나고 봄에 대대적으로 유행을 할 거라고 해서 ‘무서워서’ 맞았다고 했다. 신종플루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 산모도 있었지만 ‘계속 급수를 높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언제 차례가 돌아오나 걱정했었다’고 했다.

(2) 감염위험이 높음

임산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고위험군이라고 인식하거나 자신이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라고 인식한 여성들이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을 했다. 그러나 맞는 과정에서 불안함과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천식이란 비염이 심해서 그런 환자들은 신종플루가 감염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겁나서 맞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 위험군이라고 통보가 왔어요. 예약을 일단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신랑과 얘기도 많이 했죠. 맞고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나 이거 맞고 나도 죽고 애기도 죽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 이제 죽을 각오 하고 맞고 약 2~3일이 지나고 별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정상적으로 임신을 한게 아니라서(시험관 아기) 조금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다른사람들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해서. 그랬어요.”

(3) 자신과 태아 보호

임신 중인 여성이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이유는 ‘혼자 몸이 아니고 아기도 있었으니까 걸려서 아기한테 해가 되는 것보다는 맞으면 항체가 아기에게 간다고 하여 불안하긴 했지만 안 맞는 것 보다 나은 것 같아서’ 또는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에 걸려서 치료받을 때 약이 아기에게 더 장애를 입히지 않을까 무서워서’ 백신을 맞았는데 일부 참여자는 예약한 날 까지 고민하다가 맞았다고 했다. 주사를 맞고 나서 부작용으로 아기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은 했으나 맞고 나서는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했다.

“맞아도 후회하고 안 맞아도 후회할 바에 그냥 맞았죠. 아기에게 항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맞은 사람들 보다는 단 1%라도 제가 안심을 하고 있을 수 있지 않나싶죠. 맞고 제가 이상이 없었고 아기도 이상이 없으니까 잘 맞았다고 생각했죠.”,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항체가 가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접종을 하게 되었어요.”

(4) 평소부터 맞아옴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참여자는 독감백신은 새로 나온 게 아니며, ‘일반인도 다 맞는거고 그거 맞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으며’ 첫에 때도 맞은 경험이 있었고 매

년 맞아와서 독감주사를 맞으면서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처럼 걱정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평소에는 독감백신을 맞았으나 임신했으니까 주사 같은 거 많이 안 맞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여 안 맞은 산모도 있었다.

4) 백신접종에 대한 주위의 격려와 염려

백신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의료진 외에 남편이나 가족,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1) 의료진의 권장

의료진 중에는 임부에게 먼저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 독감주사도 접종하는데 이것도 독감의 일종이니 맞으라고 하고, 안 맞아서 걸려서 애한테 오는 부작용보다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사실 부작용이 적다고 얘기하여 임부가 맞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참여자가 접종 전에 맞는 게 나은 지 안 맞는 게 나은지, 안전한 지에 대해 상담을 했을 때 맞아도 되는 백신이니까 맞고 싶으면 맞으라고 권장해서 안심하고 맞았다고 했다.

“약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선생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신종플루라는 게 새로운 어떤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 감기바이러스 중의 하나인데 그게 특별히 불릴 뿐이라고 들었고, 백신자체도 원래 있던 백신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조금만 넣어서 만든 것뿐이지 특별한 백신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도감이 생기더라구요. 아 그런거면 맞고나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2) 남편이나 가족들의 엇갈린 반응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남편하고도 얘기를 안한 참여자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남편이랑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대해 의논을 하였으며, 남편의 반응은 맞으라고 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하거나, 절대 맞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일부 남편들은 어느 날은 맞으라고 했다가 어느 날은 맞지 말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 결정하기가 어려움을 보였다. 남편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 새로 나온 거라서 태아한테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었다. 친정과 시댁을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하거나, 애한테 영향이 갈까봐 맞지 말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 인터넷을 통한 정보추구

참여자들은 산모들끼리 대화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고 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산모들의 글을 읽는 것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제 3자로부터 의견을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라는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백신을 안 맞겠다고 결심한 임부들은 ‘맞겠다 안 맞겠다 혹은 저 맞아야 할까요’에 대한 글보다는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에 걸리면 어떤 반응이 있고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봤었다고 했다. 이에 반해 백신을 맞겠다고 결심한 임부들은 인터넷에서 백신접종을 한 임부들의 경험담이나 백신접종을 한 임부들은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에 대해 찾아봤고, 그런 내용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고 했었다고 했다.

“의료진 얘기 따로 듣고서라도 꼭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의료진이라도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니까, 사이트 들어가면 전국 곳곳에 산부인과에 다니는 산모들이 올려놓으니까 여러 의료진의 말을 건너가며 듣는거죠.”

논 의

본 연구는 임신부들의 임신 중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나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신뢰부족과 맞아야 할 필요성을 못느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에 백신을 접종한 참여자들은 태아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했으며 의료진이 권장했기 때문에 접종하였다고 했다. 범주별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 중 일부는 백신을 맞는 것이 오히려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여기거나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여 접종을 꺼리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임부들이 인플루엔자 A(H1N1) 또는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인플루엔자 백신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었다(Fabry et al., 2011; Kim et al.,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임부들이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은 이유는 백신이 태아나 산모에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염려(White et al., 2010), 백신이 적절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신념 때문이었다(Fabry et

al., 2011). 일반 성인에서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수용 예측요인은 지각된 부작용 가능성이었고(Chapman & Coups, 1999), 미국 거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플루엔자 A (H1N1)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CDC, 2009b). 이처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임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의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신부들에게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는 약을 복용해서 태아에게 좋을 게 없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A 또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임신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임부와 태아에게 안전하며(Lim et al., 2010; Tamma et al., 2009), 신생아들의 면역력 향상과 생후 6개월 동안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병원입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Benowitz, Esposito, Gracey, Shapiro, & Vázquez, 2010; Puleston et al., 2010). 따라서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여러 나라에서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임부들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임신 중인 여성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이나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을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 예정보다 출산을 빨리했거나,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나 감염위험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서, 또는 의료진이 권장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료인들도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이 직업상 높고 환자에게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이 권장된다(Ottenberg et a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간호사들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은 가장 흔한 이유는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의 필요성 부족이었다(Norton, Scheifele, Bettinger, & West, 2008). 그리고 한국 성인들이 백신접종을 안한 이유는 백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Kee, 2005), 미국 성인들이 인플루엔자 A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는 감염될 것 같지 않아서, 감염되더라도 질병이 경증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또는 자신이 백신접종 우선 그룹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었다(CDC, 2009b). 이에 반해 의료인들이 자신과 환자보호를 위해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중요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다고 지각하거나

(Al-Tawfiq, Antony, & Abed, 2009), 일반인들이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백신접종의도(CDC, 2009b)나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Bish & Michie, 2010). 이는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사람들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왜 필요한지와 고위험군에게 속하는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참여자들 중 백신을 맞은 이유는 태아보호 및 감염 예방효과 때문이었다. 캐나다 퀘벡주 임부들에서 신종플루 백신접종 결정요인은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신념이었다(Fabry et al., 2011). 일반 성인에서도 백신의 지각된 효과가 계절독감 백신 수용 예측요인이었다(Bish & Michie, 2010; Chapman & Coups, 1999). 한국성인 중 일반인 고위험군 모두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었다(Kee, 2005). 이처럼 임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인플루엔자 백신이 예방효과가 있다고 믿을 경우에 백신접종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 선행연구에서 임부들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것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에서 임신 2기와 3기 임부들을 대상으로 출산할 때 정맥제대혈을 채취한 결과 백신을 투여한 산모의 신생아의 면역정도가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산모의 신생아의 면역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uleston et al., 2010). 그리고 미국 임부에게 투여한 인플루엔자 백신은 신생아가 첫 6개월 동안 인플루엔자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Benowitz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실제로 예방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Puleston et al., 2010). 신생아들은 면역체계가 미숙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전에는 백신접종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산모들이 임신 중에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신생아들이 인플루엔자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중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임부들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가족, 미디어 또는 인터넷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들의 영향은 백신접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의료인들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권장은 임부들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홍콩임부들도 임신동안 의료진으로부터 인플루엔자백신을 맞도록 권장 받은 적이 있는 임부들이 더 접종하는 경향이 있었다(Lau,

Cai, Tsui, & Choi, 2010). 미국 10개주에서 2009~2010년 인플루엔자 시즌동안 임부들의 접종률을 조사한 결과 의료진이 백신을 제공하거나 권장했을 때 계절독감백신과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았다(CDC, 2010).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의료진이 임부들에게 권장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들을 지지했다.

한편 본 연구결과 일부 의료인은 임부들에게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호주 일반의(의료진)들도 임부들에게 임신동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권장하지 않았다(White et al., 2010). 따라서 임부들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이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임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의료진 특히 산부인과 의사의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산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산부인과학회 등 권위 있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지침을 발표하여 일관적인 내용이 산모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산모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산부인과 외래에서는 각 병원에서 제작한 교육 자료보다는 국가나 산부인과 학회에서 제작한 교육 자료를 비치하여 임부들이 궁금한 내용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의료진외에도 참여자들은 주로 남편과 백신접종에 대해 상의를 했으나 남편이나 가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는 임부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족들을 포함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미디어가 임부들이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백신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Fabry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은 산모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올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임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산모들이 흔히 방문하는 인터넷 공간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공간이 산모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비전문적인 정보만으로 채워졌을 때에는 산모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문 의료인들의 모니터링이나 팝업창 등을 사용한 정확한 정보제공

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

임산부들의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와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일부 참여자는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접종을 했다고 한 반면에 일부 참여자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기에 해가 같을까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낮거나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거나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들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을 권장했고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임신부들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률을 높려면 임부들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맞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전문가 단체,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의료진들의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임부들에게 적극적인 권장으로 이어져 임부들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각 의료기관에서 산전관리 동안 임부들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대한 교육자료 비치 및 상담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산전관리 내용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수의 임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신여성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연구가 미비한 분야인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대해 임산부들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1)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의 개발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2)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산모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임산부와 가족들의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 3)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임부들의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태도 도구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l-Tawfiq, J. A., Antony, A., & Abed, M. S. (2009). Attitudes towards influenza vaccination of multi-nationality health-care workers in Saudi Arabia. *Vaccine*, *27*(40), 5538-5541.
- Archer, B., Cohen, C., Naidoo, D., Thomas, J., Makunga, C., Blumberg, L., et al. (2009). Interim report on pandemic H1N1 influenza virus infections in South Africa, April to October 2009: Epidemiology and factors associated with fatal cases. *Euro Surveillance*, *14*(42), 1-5.
- Beigi, R. H., Wiringa, A. E., Bailey, R. R., Assi, T. M., & Lee, B. Y. (2009). Economic value of seasonal and pandemic influenza vaccination during pregnancy.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49*(12), 1784-1792.
- Benowitz, I., Esposito, D. B., Gracey, K. D., Shapiro, E. D., & Vázquez, M. (2010). Influenza vaccine given to pregnant women reduces hospitalization due to influenza in their infants.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51*(12), 1355-1361.
- Bish, A., & Michie, S. (2010). Demographic and attitudinal determinants of protective behaviours during a pandemic: A review.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Pt 4), 797-824.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09a). Receipt of influenza vaccine during pregnancy among women with live births--Georgia and Rhode Island, 2004-2007. *Morbidity & Mortality Weekly Report*, *58*(35), 972-975.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09b). Intent to receive influenza A (H1N1) 2009 monovalent and seasonal influenza vaccines--two counties, North Carolina, August 2009. *Morbidity & Mortality Weekly Report*, *58*(50), 1401-1405.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0). Seasonal influenza and 2009 H1N1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among pregnant women--10 states, 2009-10 influenza season. *MMWR Morbidity & Mortality Weekly Report*, *59*(47), 1541-1545.
- Chapman, G. B., & Coups, E. J. (1999). Predictors of Influenza Vaccine Acceptance among Healthy Adults. *Preventive Medicine*, *29*(4), 249-262.
- Choi, B. D. (2010). *Pandemic influenza (H1N1 2009) infections among Korean pregnant women*. Unpublished master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Creanga, A. A., Johnson, T. F., Graitcer, S. B., Hartman, L. K., Al-Samarrai, T., Schwarz, A. G., et al. (2010). Severity of 2009 pandemic influenza A (H1N1) virus infection in pregnant women. *Obstetrics and Gynecology*, *115*(4), 717-726.
- Fabry, P., Gagneur, A., & Pasquier, J. C. (2011). Determinants of A (H1N1) vaccination: Cross-sectional study in a population of pregnant women in Quebec. *Vaccine*, *29*(9), 1824-1829.
- Jamieson, D. J., Honein, M. A., Rasmussen, S. A., Williams, J. L., Swerdlow, D. L., Biggerstaff, M. S., et al. (2009). H1N1 2009 influenza virus infection during pregnancy in the USA. *The Lancet*, *374*, 451-458.
- Kee, S. Y. (2005). *Influenza vaccine coverage rates and perceptions on vaccina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M., Lee, S., Lee, K., Kim, A., Son, D., Chung, M., et al. (2009). Influenza vaccine coverage rate and related factors on pregnant women. *Infection and Chemotherapy*, *41*(6), 349-354.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Guidelines for influenza A prevention and management. Retrieved September 15, 2009, from <http://flu.cdc.go.kr>
- Krueger, R., & Casey, M. (2000). *Focus Groups -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3rd ed.). Sage, Thousand Oaks, CA.
- Kwon, Y., Cho, H. Y., Lee, Y. K., Bae, G. R., & Lee, S. G. (2010).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 of novel influenza A (H1N1) vaccination and vaccination coverage rate. *Vaccine*, *29*(2), 161-165.
- Lau, J. T., Cai, Y., Tsui, H. Y., & Choi, K. C. (2010). Prevalence of influenza vaccination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pregnant women in Hong Kong. *Vaccine*, *28*(33), 5389-5397.
- Lim, S. H., Lee, J. H., Kim, B. C., Jung, S. U., Park, Y. B., & Lee, C. S. (2010). Adverse reaction of influenza A (H1N1) 2009 virus vaccination in pregnant women and its effect on newborns. *Vaccine*, *28*(47), 7455-7456.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ichaelis, M., Doerr, H. W., & Cinatl, J. Jr. (2009). 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virus in humans: Another pandemic knocking at the door. *Medical Microbiology & Immunology*, *198*(3), 175-183.
- Naleway, A. L., Smith, W. J., & Mullooly, J. P. (2006). Delivering influenza vaccine to pregnant women. *Epidemiologic Reviews*, *28*, 47-53.
- Norton, S. P., Scheifele, D. W., Bettinger, J. A., & West, R. M. (2008). Influenza vaccination in paediatric nurses: Cross-sectional study of coverage, refusal, and factors in acceptance. *Vaccine*, *26*(23), 2942-2948.
- Ottenberg, A. L., Wu, J. T., Poland, G. A., Jacobson, R. M., Koenig, B. A., & Tilburt, J. C. (2011). Vaccinating health care workers against influenza: The ethical and legal rationale for a mandat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1*(2), 212-216.
- Puleston, R. L., Bugg, G., Hoschler, K., Konje, J., Thornton, J.,

- Stephenson, I., et al. (2010). Observational study to investigate vertically acquired passive immunity in babies of mothers vaccinated against H1N1v during pregnancy.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14*(55), 1-82.
- Tamma, P. D., Ault, K. A., del Rio, C., Steinhoff, M. C., Halsey, N. A., & Omer, S. B. (2009). Safety of influenza vaccination during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201*(6), 547-552.
- White, S. W., Petersen, R. W., & Quinlivan, J. A. (2010). Pandemic (H1N1) 2009 influenza vaccine uptake in pregnant women entering the 2010 influenza season in Western Australia.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3*(7), 405-407.
- Zaman, K., Roy, E., Arifeen, S. E., Rahman, M., Raqib, R., Wilson, E., et al. (2008). Effectiveness of maternal influenza immunization in mothers and infant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9*(15), 1555-1564.